

창조연대 논쟁 II

Creation Date Controversy II
- A Historical Study

역사적 고찰

양승훈

- I. 1-3세기
- II. 4세기
- III. 초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반발
- IV. 중세
- V. 종교개혁기에서 18세기 중엽
- VI. 폭풍의 전야
- VII. 갈등과 타협
- VIII. 새로운 분열
- IX. 그러므로 역사

Abstract

The majority of the church leaders of the early through the middle age church interpreted the YOM as an indefinite period, while the scholars between the Reformation and 18th century accepted the young earth. With the appearance of modern geology, however, the Day-Age perspective was dominant as a best harmonization between the biblical interpretation and modern geology. From the controversy over the creation date, we suggest that we should accept some inevitable ambiguities in the creation date discussion and that the date controversy is unnecessary as far as the antiquities of the earth and universe are directly related to the atheistic evolutionism.

성경이 명백한 답을 하지 않는 문제이면서도 중요한 교리적 함의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일반적으로 초대 교회 교부들이나 역사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들이 그 문제에 관해 어떤 입장을 취하였는가를 살펴본다. 창조연대에 대한 문제는 근대가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크게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18세기 현대 지질학이 대두되고, 19세기 중반 다윈에 의한 현대 진화론이 시작되면서, 그리고 자연주의와 결합된 진화론이 지질학의 기초 위에 세워지면서 우주와 지구, 생물의 연대문제는 기독교계에서 첨예한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초대 교회로부터 종교개혁기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 교회 지도자들이 역사적으로 창조 연대 문제에 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였는가를 살펴본다.

I. 1-3세기

1세기에 창조주간의 길이에 관하여 최초의 기록된 언급을 남긴 학자로는 유대인이었던 필로(Philo, c 20 BC-AD 45)와 요세푸스(Josephus, AD 37-103)를

들 수 있다. 필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순간적으로 창조하셨으며, 옛세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이며 질서와 완전함을 나타내기 위한 은유라고 하였다. 후에 필로는 그의 생각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세상이 옛새나 혹은 어떤 시간적인 간격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왜 그런가? 모든 시간의 기간은 낮과 밤의 시리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은 태양이 지구 위를 지나 지구 아래로 내려가는 것과 같은 태양의 움직임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양은 하늘의 일부이며, 그래서 그 시간은 분명히 세상보다 더 최근의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세상이 시간 속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세상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왜냐하면 시간의 특성에 관한 기준은 하늘의 움직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모세가 “그가 여섯째 날에 그의 일을 마치셨다”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가 날들의 수를 말한 것이 아니라 완전 숫자로서의 6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¹⁾

요세푸스는 창 1:3-5을 “하나님께서 그 곳에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셨고 빛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의 덩어리로 간주하여 빛과 어두움으로 분리하셨다. 그리고는 어두움을 밤이라고 이름 지으셨고,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다. 빛의 시작과 휴식시간을 각각 아침과 저녁이라고 칭하셨다. 이것이 첫째 날이었다.”고 했다.²⁾ 이것은 흔히 창조과학자들이 창조주간의 음이 저녁과 아침으로 잘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태양일 하루를 나타낸다는 주장과는 달리 아침과 저녁이 오늘날과 같은 것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이어서 요세푸스는 창세기의 창조의 날에 관하여 “하루”라는 표현의 의미를 설명하겠노라고 하면서 “... 모세는 ‘한’(one) 날이라고 말했다. 이 이유를 지금 쓸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것들에 대한 이유를 그 자체만 따로 쓰기로 앞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명을 연기할 것이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책 어디에서도 창조주간의 ‘날’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창조주간의 ‘날’에 대한 좋은 해석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한(one) 날’이라는 요세푸스의 말은 창조주간의 ‘날’이 서수의 수식을

1) Hugh Ross, *Creation and Time: A Biblical and Scientific Perspective on the Creation-Date Controversy*(Colorado Springs, CO: Nav Press, 1994).

2) Flavius Josephus, *The Antiquities of the Jew*, Books I-VI(Harvard University Press); 요세푸스, 「유대고대사 I」(서울: 달산, 1991), 37면.

받기 때문에 태양일이라는 창조과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한글 성경에서는 창 1:5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고 번역하여 ‘날’이란 말에 서수적 수식어를 붙였으나 일반적으로 유대 랍비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되니라”고 하여 기수적 의미를 찾고자 하였음을 유의해야 한다.⁷⁾

2세기에 창조의 시간에 대하여 기록한 기독교 학자로는 저스틴 마티(Justin Martyr, c AD 100-166)와 이레니우스(Irenaeus, c AD 130-200)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들은 시 90:4과 벧후 3:8의 말씀을 근거로 창조의 각 날들이 수천 년의 기간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⁸⁾

3세기 학자들은 어떠했는가? 2세기말부터 3세기 초까지 살았던 히폴리투스(Hippolytus, c AD 170-236)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방대하게 창조날에 관한 글을 쓴 것으로 보이는데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글들은 현재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암브로우스(Ambrose, c AD 340-397)의 글에서 히폴리투스가 이레니우스와 같이 창조의 각 날들을 천 년으로 해석했음을 알 수 있다.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 c AD 150-220)도 필로와 같이 창조의 날들은 문자적으로 24시간이 아니라 단지 피조물들의 질서와 우선순위를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그는 창조는 시간 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닌데 이는 “시간은 존재하는 사물과 더불어 창조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⁹⁾

오리겐(Origen, c AD 185-254)은 성경 난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항상 문자적인 의미만을 찾아서는 안되며, 영적인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⁰⁾ 그 대표적인 예로 그는 창세기의 6일 창조주간을 들었다. 그는 시간이

7) 요세푸스 「유대고대사 I」, 37편과 그 아래 각주 16)을 보라.

8) Justin Martyr, “Dialogue With Trypho”, chapter 81, *Writings of Saint Justin Martyr*, in *The Fathers of the Church*, vol. 6, Ludwig Schopp, editorial director(New York: Christian Heritage, 1948), pp. 277-278; Irenaeus, “Against Heresies” Book V, Chapter XXIII, Section 2, *The Ante-Nicene Fathers*, vol. I, edited by Alexander Roberts and James Donaldson(Grand Rapids, MI: Eerdmans, 1981), pp. 551-552. - Ross, *Creation and Time*, pp. 18-19에서 재인용하였다.

9) Clement of Alexandria, “The Stromata”, Book VI, *Clement of Alexandria: A Study in Christian Platonism and Gnosticism*, by Salvatore R. C. Lilla(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1), pp. 198-199; “The Stromata”, Book VI, Chapter XVI, *The Ante-Nicene Fathers*, vol. II, pp. 512-514, - Ross, *Creation and Time*, p. 18에서 재인용하였다.

10) Origen, *Origen on First Principles*, Book IV, Chapters I and II(New York: Harper

란 일월성신이 창조된 넷째 날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그는 적어도 처음 사흘간은 24시간 하루로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경 본문(The text)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말했으며, “첫째 날”(The first day)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 날”(One day)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는 시간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은 그 후 따라오는 날들과 함께 존재하기 시작했다.¹¹⁾

어떻게 지성적인 사람이 첫째, 둘째, 셋째날, 그리고 저녁과 아침이 해와 달과 별이 없이 존재했다고 믿을 수 있는가?¹²⁾

오리겐에 의하면 적어도 일곱째 날은 24시간이 될 수 없었다. 그는 창조주간 의 6일은 인간이 지구 위에서 일하는 시간(인간 역사의 기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으며 일곱째 날은 세상의 창조와, 모든 의인들의 승천과 함께 오게 될 세상의 멸망 사이의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았다.¹³⁾

3세기 후반 락탄티우스(Lactantius, c AD 250-325), 빅토리누스(Victorinus of Pettau), 메토디우스(Methodius of Olympus) 등도 모두 저스틴 마터와 이레니우스의 견해처럼 창조의 날들을 천 년의 기간들로 보았다.¹⁴⁾

II. 4세기

Torchbooks, Harper and Row, 1966), pp. 277-278; “Against Celsus”, Book VI, Chapter LX, in *The Ante-Nicene Fathers*, vol. IV, edited by Alexander Roberts and James Donaldson(Grand Rapids, MI: Eerdmans, 1979), pp. 600-601.

11) Origen, “Homilies on Genesis and Exodus”, *The Fathers of the Church*, vol. 71, Hermigild Dressler, editorial director(Washington, DC: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82), p. 48. - Ross, *Creation and Time*, p. 19에서 재인용하였다.

12) Origen, *Origen on First Principles*, Book IV, Chapters III, p. 288. - Ross, *Creation and Time*, p. 19에서 재인용되었다.

13) 오리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그는 일월성신이 “οὐλετι εις αρχας ημερας και της νυκτος ἀλλ’ εις την αρχην της ημερας και της νυκτος”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하였다(Com. in Genesis, i. 16). 헬라어 원문은 「풀썩 성경주석 창세기(상)」(보문출판사, 대구: 1980), 162-163면에서 재인용하였다.

14) Ross, *Creation and Time*, Chapter 2, Notes 18-20을 보라.

4세기 인물들 중의 대표적인 기독교 학자로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어거스틴(Augustine, 354-430)을 들 수 있다. 아마 교회사에서 어거스틴 만큼 창조의 날들에 관해 자세하게 분석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¹¹⁾ 「신의 도성」(*The City of God*)에서 그는 “이 날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은 - 단어만 가지고 설명하게 하는 것은 - 매우 어려우며 아마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했다.¹²⁾ 「창세기의 문자적 의미」(*The Literal Meaning of Genesis*)라는 책에서 그는 “그러나 우리는 그것(창세기의 창조 날들)이 우리들에게 익숙한 일상적인 날들이 아님을 알고 있다”고 했고, 그 책의 다른 부분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¹³⁾

창조의 날들의 모형을 보면 7일은 한 주일을 만든다. 그러한 주간이 지나감으로 시간이 흘러가고 이 주간들 중의 하루는 일출로부터 일몰까지 태양의 운행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날들이 창조의 날들을 회상시키지만 실제로는 창조의 날들과 유사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

어거스틴은 창조주간의 저녁과 아침을 상징적으로 해석하였다. 그는 각 창조일의 저녁은 천사들이 창조주를 목상한 후 피조계를 내려다 보았을 때를, 그리고 아침은 그들이 피조물들을 알고 창조주를 찬양하기 위해 일어섰을 때를 말한다. 특히 창조 제칠일에 관하여 「고백」(*Confessions*)에서 어거스틴은 창조 주간의 “제칠일에는 저녁도 없고 또한 일몰도 없습니다. 주께서는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도록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적어도 그는 일곱째 날에는 저녁과 아침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날을 영원 속으로 뺀어 가는 한 기간으로 만드셨다고 말했다.¹⁴⁾

11) 아우구스티누스, 「고백」, 김희보 역(서울: 종로서적, 1989) 제11권 “천지 창조와 시간론”은 순전히 창조의 시간에 관한 목상이며, 창세기 1장에 관한 목상인 12, 13권에도 곳곳에 시간에 관한 목상들이 있다.

12) 이것의 라틴어 원문을 소개하면 “Qui dies cujusmodi sint, aut perdifficile nobis aut etiam impossibile est cogitare, quanto magis dicere”(De Civitate Dei, xi. 6). 이것은 Franz Delitzsch, A New Commentary on Genesis, Vol. 1(Minneapolis, MN: Klock & Klock Christian Publishers, 1978), p. 84에서 재인용하였으며 이 책은 1888년에 처음 출판되었다.

13) 이하 어거스틴에 관한 인용은 Ross, *Creation and Time*, Chapter 2의 Notes 21-25를 보라.

14) 아우구스티누스, 「고백」, 399면.

어거스틴 외에도 창조주간의 길이에 관해 논의한 사람들이 몇몇 있었다. 가이사라의 주교였던 유세비우스(Eusebius, c AD 260-340)는 주후 314-316년 사이에 15권으로 된 「복음을 위한 준비」(*Preparation for the Gospel*)라는 긴 변증서를 책으로 썼다. 책 I-VI에서 그는 회랍, 로마, 페니키아, 이집트, 그리고 이방인들의 창조교리들을 비판했다. 그리고 VII에서 여섯 면을 창세기의 창조기사를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그러나 이 논의 어디에서도 유세비우스는 우주와 지구의 창조일이나 창세기의 창조일들의 길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명히 히브리어에서 날을 의미하는 ‘욥’이 24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이것은 그가 창 2:4을 인용하는 것에서 드러난다: “이것은 천지의 생성에 관한 책이다. 그 날(day)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으며 만물은 그 속에 있었다.”¹⁵⁾ 여기서 그는 창조주간 전체를 표시하는 데 단수형 ‘날’을 사용하였으며 이것은 그가 창조의 날들을 태양 일 하루로 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역시 가이사라의 주교였던 바실(Basil, c AD 330-379)은 창세기 1장에 관한 아홉 편의 설교를 썼다. 그러나 우주 창조의 일자를 찾는 것이 어려움을 시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최초의 날을 발견하려고 노력한다면 언제 세상이 형성되기 시작했는지 그 시기(epoch)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최초의 시간이 어떻게 운행되었는지를 발견할 것이다.”¹⁶⁾ 창세기 1장에 관한 설교의 나머지 부분에서 바실은 창조 시간에 관한 것으로부터 창조 행위로 관심을 돌린다.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우스(c AD 340-397)는 창조주간 엿새의 길이를 144시간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인용했던 초대 교회 지도자였다. 그러나 창조주간 엿새에 관한 280여 면에 이르는 그의 설교에서 암브로우스는 단 한 면에도 이르지 못하는 지면을 창조주간의 날들의 길이를 논의하는 데 사용했을

15) Eusebius, Bishop of Caesarea, *Preparation for the Gospel*, Part 1, Books 1-9, trans. Edwin Hamilton Gilford(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81), p. 343.

16) Basil, Bishop of Caesarea, “The Hexameron”, *A Select Library of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second services, edited by Philip Schaff and Henry Wace, vol. VIII, *St. Basil: Letters and Selected Works; The Nine Homilies of the Hexameron and the Letters of Saint Basil the Great*, Archbishop of Caesarea, trans. Blomfield Jackson(Grand Rapids, MI: Eerdmans, 1955), p. 55. - Ross, *Creation and Time*, p. 21에서 재인용.

뿐이다. 그것도 날의 길이를 명시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단지 창조의 각 날들이 24시간임을 암시하고 있을 뿐이다.

성경은 밤과 낮을 포함하는 24시간을 날(day)의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법칙을 설정하였다. 이는 마치 어떤 사람이 하루(one day)의 길이를 24시간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 이런 계산에서 밤은 계수되고 있는 낮의 한 부분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시간이 한 번 회전하는 것과 같이 단지 하루가 있을 따름이다.¹⁷⁾

그러나 바로 뒤이은 문장에서 암브로우스는 창 2:4에 나오는 욥을 염두에 둔 듯 “많은 사람들은 하루가 되풀이되는 것과 같이 매주 같은 날이 되돌아오기 때문에 한 주간을 하루라고 해석한다. 이레가 지나면 다시 같은 날이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욥’에 대한 정의로서 대(代, era) 혹은 기(期, epoch)를 언급하였다. 이에 대한 예로서 창조에서 “주의 날”(day of the Lord), “영원한 보수의 날”(eternal day of reward)을 들었다. 그러므로 암브로우스가 우주와 지구를 얼마나 오래된 것으로 보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¹⁸⁾

III. 초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반발

로스는 초대 교회 지도자들의 대다수가 창조주간을 144시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증거들에 대하여 짧은 지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흔히 두 가지를 지적한다고 했다. 첫째, 초대 교회 지도자들이 회랍철학의 영향을 받아 혼합주의에 빠졌거나 타협했다는 주장이고, 둘째, 초대 교회 학자들의 글이 교리적 측면에서 오류였다는 것이다.

첫번째 반론에 대하여 로스는 첫번째 몇몇 회랍 철학자들이 우주는 끝도 시작도 없는 영원한 것이라는 주장한 반면, 위에서 언급한 초대 교회 지도자들은 모두 창조의 날들을 길게 보았던지 짧게 보았던지, 하나님께서 유한한 시간 속

17) Ambrose, Bishop of Milan, “Saint Ambrose: Hexameron”, trans. John J. Savage, *The Fathers of the Church, A New Translation*, vol. 42, Roy Joseph Deferrari, et al.(New York: Fathers of the Church, Inc., 1961), p. 42.

18) Ambrose, *The Fathers of the Church, A New Translation*, pp. 42-43.

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믿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더욱이 그는 초대 교회 지도자들이 회람철학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도리어 이레니우스와 다른 지도자들은 회람철학을 강력하게 비난하였음을 제시한다.

물론 당시 지중해 연안을 지배하고 있었던 문화가 헬레니즘이었고 더구나 신약성경이 회람어로 기록되었던 만큼 초대 교회 지도자들 역시 은연 중에 회람적 분위기에서 호흡하고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입으로는 회람철학을 비난하면서도 글을 통해서는 은연 중에 시대의 지배적인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이나 바울, 누가와 같은 성경 기록자들은 회람문화의 독특한 용어나 개념들을 많이 사용하여 성경을 기록하였다. 오리겐 같은 이들은 성경의 변증을 위해서는 회람철학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교회 지도자들이 혼잡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명시적으로 성경과 반하는 회람사상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도무지 상상하기 어렵다.

초대 교회 지도자들이 비성경적인 이방 철학과 타협한 사람들이었다면 ‘타협자’라고 불리는 이들이 과연 교회 내 거짓 교사들을 쫓아내고 세속적 도덕과 행동, 가르침 따위에 도전할 수 있었겠는가? 저스틴 마터, 이레니우스, 오리겐 등과 같은 몇몇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모진 박해를 받으며 순교까지 한 사람들이었으며, 더욱이 이들이 활동하던 2세기는 회람철학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생겨난 영지주의 때문에 교회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회람철학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경계하는 분위기 속에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과 반하며 회람철학의 가르침을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이론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이 로스의 주장이다.

또한 이들의 교리적 오류 가능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에게 있어서 제한된 자원, 어려운 통신, 원거리 여행의 한계 등등을 생각해야 한다. 그들은 교회가 형성되고 있는 시기에 활약했으며, 대부분 신약의 정경조차 확립되지 않은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과 사도들이 기록한 것들의 신학적이며 실제적인 의미를 분별하기 위해, 그리고 이들이 구약이 가르치는 바와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많은 자원들과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는 현대 학자들조차 불가능한 작업, 즉 교리적 완전성을 그들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이다.¹⁹⁾

또한 오늘날 우리들이 성경적이라고 알고 있는 교리들이 대부분 바로 이 시기에, 이들에 의해 확정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물론 주요 교리에 관한 당시 교회 지도자들의 의견이 모두 일치한 것도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이 볼 때 이 단적인 듯이 보이는 주장을 한 지도자들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당시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사용하셔서 기독교의 교리적 틀을 만들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사람들이 모여 종교회의를 했지만 성령께서 이들을 지도하셨고 부분적으로 특정 교리가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 인간의 술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그 후 1500년 이상의 교회사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 수정, 보완, 확증되었다. 물론 아직까지 토론의 여지가 있는 교리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교파마다 약간씩 교리가 다르기도 하지만, 이제는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교리에 대한 토론은 분명한 어떤 범주 내에 있다.

IV. 중세

중세 전 기간을 통해서 교회학자들은 창조기간에 대해 관용적 태도를 견지했던 초대 교회 지도자들의 태도를 존중했다. 학자들은 창세기나 창조의 의미에 관한 많은 글들을 썼지만 창조연대에 관한 한 초대 교회 지도자들과 다른 새로운 주장을 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베데(Venerable Bede, 8C), 보나벤투라(St. Bonaventura, 1221-74), 알베르투스 마그누스(Albertus Magnus, c 1193-1280), 아퀴나스(Thomas Aquinas, c 1225-1274) 등은 교회 교부들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창조연대에 관한 새로운 주장들을 하지 않았다.

V. 종교개혁기에서 18세기 중엽

중세와는 달리 종교개혁기나 그 후의 학자들은 창조연대에 대해 많은 관심

19) 현대의 신학자들과 초대 교회 당시의 지도자들 중 누가 더 권위 있는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었는가의 질문은 아무도 분명하게 대답할 수 없는, 역사학의 기본적인 질문 중의 하나이다.

을 가졌다. 일반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은 그 이전 학자들의 비유적, 상징적 성경 해석보다 좀더 엄격하게 문자적인 성경해석을 선호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루터(Martin Luther, 1483-1546)는 어거스틴의 창세기 해석을 반대하고 문자적으로 옛새 동안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모세로부터 이 세상이 6천 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배운다.”는 결론에 이르게 하였다. 루터는 지구가 6천 년 되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창조가 봄에 일어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엄격하게 문자적인 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루터가 창조주간의 길이를 태양일 24시간이라고 하는 따위의 창조주간의 길이에 대한 명시적 주장을 하지 않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²⁰⁾

종교개혁기에 루터 진영에 속했던 멜랑흐톤(Philip Melancthon, 1497-1560), 게하르트(John Gerhard, 1582-1637) 등의 학자들도 이러한 루터의 입장을 따랐다. 또한 루터 진영의 칼비시우스(Calvisius, 1556-1615)는, 창조는 기원전 3944년에 일어났지만 창조가 일어난 계절은 봄이 아니라 가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모두가 성경에 기록된 계보를 근거로 창조연대를 계산하였다는 점에서는 대동소이 하다.²¹⁾

칼빈(John Calvin, 1509-1565)의 경우는 창조연대를 다루는 데 있어 6천 년 운운하는 점에 있어서는 루터와 별 차이가 없는 듯하지만 자세히 보면 강조점이 다름을 볼 수 있다. 칼빈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옛새 동안이라는 시간을 구분하여 창조하셨음을 기록한 것은 “옛날 애굽이나 그밖의 나라들에서 성행했던 과상망측한 우화들을 물리치기 위한 뿐만 아니라 세계는 처음 시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하나님의 영원성을 더 분명히 빛내어 우리로 하여금 감탄케 함으로써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²²⁾ 그는 모세가 천지창조의 역사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6일 동안에 되었다고 기록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일체의 공상을 물리치고 유일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옛새 동안에 나누어 하심으로서 우리가 종생토록 이를 명상토록” 하기 위

20) Martin Luther, *Lectures on Genesis*(St. Louis: Concordia, 1958), p. 3.

21) Davis A. Young, *Christianity & the Age of the Earth*(Thousand Oaks, CA: Artisan Sales, 1988), p. 24.

22)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Philadelphia, PA: Westminster, 1960), p. 160. - 위 인용은 김문제 역, 「기독교강요」(서울: 세종문화사, 1977), 제1권, 309면에서 가져온 것이다.

한 것이라고 했다.²³⁾ 「기독교강요」 14장 전체를 천지창조 논의에 할애한 칼빈이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창조주간의 길이가 아니라 창조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창조의 목적, 창조의 의미였다.

칼빈 진영에 속했던 다른 학자들도 지구의 나이나 창조연대에 대해 언급하였다. 잔키우스(Zanchius, 1516-1590), 보에티우스(Voetius, 1589-1676), 마레스우스(Maresius, 1599-1673), 투레틴(Francis Turretin, 1623-1687) 등은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이 중 투레틴은 갈릴레오가 죽은지 몇 년 후에까지 성경을 근거로 여전히 지구는 고정되어 있고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돌며, 나아가 창조가 가을에 일어났다는 주장을 하였다.

지구의 창조연대는 비단 개혁자들만의 관심은 아니었다. 카톨릭 신자들 중에도 지구의 연대를 말한 자들이 있었다. 카제탄(Thomas Cajetan, 1469-1534)과 수아레즈(Francisco Suarez, 1548-1617) 같은 카톨릭 학자들도 종교개혁자들과 같이 최근의 창조를 주장했다. 특히 페타비우스(Petavius, 1583-1652)와 같은 학자는 창조연대를 주전 3984년으로 못박기도 하였다.²⁴⁾

그러나 이러한 젊은 지구, 최근 창조연대는 그 이전의 다른 학자들의 견해와 다르긴 하지만 교회 내에서 별로 큰 갈등을 가져오지 않았다. 창조연대 문제를 두고 대립과 분열의 씨앗을 뿌린 것은 영국의 두 학자였다. 17세기 중엽, 흠정역(KJV) 성경번역에 참여한 두 영국 학자의 정확한 성경해석에 대한 열심은 수세기 후에 경직된 독단으로 변질되어 수세기 동안 기독교인들을 분열시키고 신앙을 사실과 분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642년, 흠정역 성경이 출간된지 31년 후였을 때 캠브리지의 주교이자 캠브리지대학의 부총장이며 유명한 히브리어 학자였던 라잇폴(John Lightfoot, 1602-1675)은 우주가 주전 3928년 9월 17일에 창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연대는 창세기, 출애굽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나타난 사람들의 계보를 근거로, 그리고 일 년을 현재와 같은 365일로 계산하여 나온 것이었다. 그로부터 8년 후, 아일랜드 아르마즈의 대주교(Archbishop of Armagh)였던 어셔(James Ussher, 1581-1656)는 라잇폴의 연대를 약간 수정하여 창조연대가 주전 4004년(율리우스曆 710년) 10월 3일이라고 발표하였다. 어셔는 성경에 나타난 모든 계보와 역사적인 사건의 연대를 고려하여 창조연대를 계산하였다. 처음에는 라

23) Calvin, 「기독교강요」, 제1권, 311면.

24) Young, *Christianity & the Age of the Earth*, p. 24.

잇풀과 어서의 연대가 약간 달랐지만 한동안의 논쟁 끝에 라이트풀은 어서의 연대에 맞추었다. 그는 모든 창조 역사는 주전 4004년 10월 18-24일 사이에 일어났으며 아담의 창조는 10월 23일 오전 9시에 이루어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기가 막히게 정확한 창조 연대는 당시 성경학자들과 비평가들 사이에 널리 받아들여졌다.²⁵⁾

그러나 이러한 결론을 내린 어서나 라이트풀은 둘다 히브리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무시했으며 성경에 기록된 계보가 생략된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들은 흠정역 성경의 단어에만 근거하여 창조주간은 여섯 번의 연속적인 24시간 하루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은 오늘날 태양력으로 1주일 이내에 일어났으며 성경에 나타난 인류의 계보들은 빠짐없이 기록되었다는 가정은 타당한 것인가? 계보에 관한 성경의 몇몇 구절들은 아담으로부터의 계보에 빠진 세대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²⁶⁾ 성경에 계보를 기록할 때는 기록자에 따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인물을 빼고 기록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주와 인간의 정확한 창조 연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으며 우리는 단지 성경의 해석과 과학적 증거들로부터 개략적이고 잠정적인 연대를 추정해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세기가 시작될 무렵의 흠정역 성경에서는 어서의 연대가 성경의 관주나 제목으로써까지 삽입되었다. 많은 독자들은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의 구절과 주석가들이 추기한 연대를 잘 구별하지 못했다. 더욱이 흠정역 성경은 재빨리 영어권 나라들의 독보적인 성경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기독교가 유럽을 벗어나 세계로 퍼질 때 이 영어권 나라들이 바로 개신교의 주요 지지자들이 되었다. 그 이후 오랫동안 심각한 논의도 없이 창조연대와 성경은 결합하게 되었고 어서의 계산은 개신교가 퍼지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권위 있는 계산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어서의 연대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개혁자들이나 그 이후의 문자적 해석가들의 견해와 다른 견해가 교회의 중심부에서도 이따금씩 제기되기도 하였다. 패트릭(Simon Patric, 1626-1707) 주교는 창세기에 대

25) Bernard Ramm, *The Christian View of Science and Scripture*(Grand Rapids, MI: Eerdmans, 1954), p. 121.

26) 예를 들면 창 4:14, 11:12-13; 눅 3:35-36.

한 해석에서 어거스틴과 비슷한 해석을 제시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창 1:2의 “카오스가 창조된 후에 그로부터 빛이 나오기까지(extract) 만물이 얼마나 오랫동안 혼동(confusion) 가운데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여기에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상당한 시간이 지났을 것이다. 그 동안 전능한 성령은 그 가운데서 움직이며 그 후 모세가 말한 것과 같은 시간 속에서 계속 나타난 산물들의 모든 부분들을 준비하며, 정돈하며, 성숙시켰을 것이다.”고 했다. 그는 또한 창조 여섯째 날은 그 날 일어난 일들로 미루어 하루가 아닌 상당한 기간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당시의 신학적 조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²⁷⁾

또한 모든 나라들이 어서의 젊은 지구연대를 받아들인 것도 아니었다. 한 예로 1700년대에 들어와 중국에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 중국의 역사 기록은 인간의 문명이 어서가 우주의 창조연대라고 한 것보다 오히려 더 오래 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 사실은 불행하게도 당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비영어권에서 어서의 연대와 충돌하는 최초의 기록이 되었다.

VI. 폭풍의 전야

교회 내에서의 신학적 논의와 더불어 과학의 분야에서는 지구의 연대와 관련된 또 다른 연구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이것은 화석의 기원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8세기 중엽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화석이 과거에 살았던 생물들의 유해라는 확신을 갖지 못했다. 어떤 사람들은 자연의 짓궂은 장난으로 생각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으로 생각한 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화석수집가로서 조개 화석에 관한 여러 권의 책도 저술했으며 런던왕립학회 회원이었던 리스터(Martin Lister, c 1638-1712)는 특정한 화석이 특정한 지층에서만 나온다는 사실까지 알았으면서도 화석이 한 때 생존했던 생물의 유해라는 확신을 갖지 못했다. 화석 조개가 실제로 한 때 생존했던 조개였다면 왜 화석 조개의 구성성분이 현재 살아있는 조개들과 다른지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27) E. Hitchcock, *The Religion of Geology*(Boston: Phillips, Sampson, 1851), p. 42.

훌륭한 박물학자였던 영국의 레이(John Ray, 1627-1705) 역시 화석의 생물기 원론을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많은 화석들이 현존하는 생물들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으며 또한 화석이 멸종한 생물의 유해라면 왜 하나님께서 태초에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한 생물 세계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노아의 홍수로 많은 생물들이 죽었지만 적어도 두쌍씩은 방주에 태우지 않았던가! 또한 그는 화석이 강가나 바닷가가 아닌 내륙 깊은 곳이나 높은 산지에서 발견되는 것, 게다가 연한 흙이 아닌 단단한 암석 속에서 발견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일 년 미만의 노아의 홍수만으로는 암석과 화석의 분포를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다. 거대한 지진이 해저 생물들의 화석을 높은 곳으로 이동시켰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역사적으로 알려진 가장 큰 지진이라고 해도 바다 밑바닥을 수천 미터 산으로 만들지는 못했다.

그러나 17세기 말부터 화석과 지층의 형성이 노아의 홍수 때문이라는 주장이 점점 확산되면서 화석의 생물기원론이 점차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이미 오래 전에 터틀리안온(노아의 홍수임을 분명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산에 있는 화석은 거대한 홍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다. 크리스소스톰이나 어거스틴, 나아가 루터도 화석은 노아의 홍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에 대한 구체적 시나리오를 만든 사람은 영국의 신학자 버어넷(Thomas Burnet, 1635-1715)이었다. 그는 지구 표면을 모두 덮는 홍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현재의 바닷물보다 여덟 배의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아 홍수를 일으킨 물은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만들었다가 홍수가 끝나자 없애 버렸다고 했다.

버어넷의 홍수 시나리오에는 화석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 그의 이론은 화석의 기원을 찾고 있던 학자들에 의해 재빨리 인용되었다. 런던 그래샴대학(Gresham College) 물리학 교수였던 우드워드(John Woodward, 1665-1722)는 홍수 때 물 속에는 많은 진흙 따위의 입자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홍수가 물러가면서 물 속에 쓸려 다니던 각종 생물의 유해나 암석들이 비중에 따라 묻히게 되었다는 현대 홍수지질학자들의 핵심적인 주장을 제시했다.

위스톤(William Whiston, 1667-1752)은 우드워드와 화석의 기원은 비슷하지만 창조 시나리오가 판이한 흥미 있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에 의하면 지구는 원래 혜성이었는데 태양의 중력에 의해 포획되었다. 창 1:2의 혼돈은 혜성의 대기상태라고 했다. 또한 이 때 지구는 자전운동 없이 공전만 하고 있었으므로

일 년의 절반은 낮이고 절반은 밤이었다고 했다. 그러므로 창조주간의 하루는 일 년이며 따라서 창조연대는 어서의 계산보다 6년이 긴 B.C 4010년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는 계속하여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지구는 지축에 대해 약간 기울어지게 되었고, 동시에 자전이 시작되었으며, 태양 주위로 원운동을 하던 지구가 타원운동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따라서 아담의 타락과 더불어 계절과 24시간 태양일이 시작되었다고 했다. 또한 그는 노아의 홍수는 다른 해성이 지구에 접근함으로 일어났으며 지층과 화석은 홍수 때 암석과 생물들이 비중에 따라 매몰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위스톤의 주장은 한편으로는 20세기 벨리콥프스키의 주장을 연상케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소위 날-시대이론을 연상케 하였다.

화석이 생물의 유해이며 노아의 홍수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주장은 종교개혁기 이후 교회를 지배해 온 6천 년 지구 개념과 크게 상충되지 않았다. 짧은 지구 개념과 지질학 이론의 갈등의 씨앗은 화석이 노아의 홍수와 같은 일회적인 대규모 홍수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는 주장으로부터 출발하였다. 화석이 노아의 홍수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라는 최초의 기록은 다빈치(Leonardo da Vinci, 1452-1519)의 노트이다. 노트의 기록으로 미루어 다빈치는 노아의 홍수만으로는 화석 조개의 분포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프라카스토로(Girolamo Fracastoro, 1478-1553)나 팔리시(Bernard Palissy, 1510-1589)도 비슷한 생각을 가졌다. 특히 독학자이면서 도공(ceramist)이었던 팔리시는 홍수만으로는 관측되는 지질현상들을 설명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수 없으며 화석의 분포와 고도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전문 지질학자는 아니었지만 화석의 형성과 분포를 구체적으로 시간과 관련 지은 최초의 사람이었다.

물리학자로 더 널리 알려진 훅크(Robert Hooke, 1635-1703) 역시 화석의 생물기원설을 받아들이면서 홍수론을 거부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당시 화석의 생물기원설과 분포를 설명하는 데 따르는 난점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가설을 제시하였다. 화석의 구성성분이 현존하는 생물과 다른 것은 생물의 유해가 광물질로 대체되는 소위 화석화 과정(petrifying process)을 통해 돌로 변했기 때문이라는 중요한 이론을 제시했다. 또한 화석의 분포와 고도를 설명하기 위해 지진과 더불어 화산활동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그의 주장 역시 그처럼 널리, 그리고 높은 지대까지 화석을 형성할 수 있는 지진이나 화산활동의 관찰이나 기록된 증거가 없다는 약점을 갖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의 기여가 있었지만 역시 18세기 중엽까지 가장 중요한 지질학

적 이론은 덴마크 루터교인이었다가 후에 카톨릭으로 개종한 스텐센(Niels Steensen, 1638-1686)이었다. 흔히 스테노(Steno)라고 더 잘 알려진 그는 화석의 생물기원설과 더불어 소위 ‘지층누중의 법칙’(Law of Superposition)을 제안하였다. 그는 산의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결정질 암석과 그 위에 퇴적된 암석을 각각 1차 암석(primary rocks), 2차 암석(secondary rocks)으로 구분하고 퇴적암의 경우 아래에 있는 지층은 위에 있는 지층보다 오래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아들’이었던 스테노의 결론은 여전히 6천 년 지구 역사와 전지구적 대홍수의 틀 속에 있었다.

VII 갈등과 타협

18세기 중반까지의 지질학자들은 다소 어색한 감이 없지는 않았지만 6천 년 지구역사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18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여기 저기서 6천 년 지구역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의 구에타르(Jean Etienne Guettard, 1715-86), 데마레스(Nicholas Desmarest, 1735-1815) 등은 화산과 인근 용암에 대한 자세한 연구를 통하여 화산 폭발이 인간의 출현 이전에 일어났을 가능성을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제시하였다. 독일의 레만(Johann Lehmann, d 1767)은 “화강암, 편마암 등의 1차 암석은 창조 때에, 석회암, 사암 등의 2차암석은 노아의 홍수 때에 형성된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태리의 아르뒤노(Giovanni Arduino, 1714-95)는 “지층은 오랫동안 침식이나 침전, 퇴적 등과 같은 일상적인 과정을 통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 오랜 기간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기간 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이러한 생각은 독일의 지질학자 베르너(Abraham Gottlob Werner, 1749-1817)와 영국의 스미스(William Smith, 1769-1839)에 이르러 학설로 정립되었다. 베르너에 의하면 결정질의 1차암석은 원시대양에서 화학적 침전에 의하여 만들어졌고 퇴적암은 기계적인 퇴적에 의해 만들어졌다. 베르너의 주장은 대부분의 암석의 생성이 대양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해성설’(Neptunism)이라고 불렸다.²⁸⁾

한편 토목공학자였던 스미스는 영국에서 석탄을 운반하는 운하를 건설하면서 화석의 형태와 지층의 규칙성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어떤 특정한 지층은 특정한 화석만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그 지층보다 위나 아래의 지층은 전혀 다른 화석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층과 화석의 연구를 근거로 그는 1815년 뛰어난 영국의 지질지도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엔지니어로서 지층이 홍수에 의해 형성되었는지 오랜 세월에 걸친 퇴적에 의해 형성되었는지 따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지질학자들은 스미스가 제시한 넓은 영역에 걸친 규칙적인 지층의 출현은 6천년된 지구나 홍수설과는 양립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6천 년 지구에 대한 최초의 정량적인 도전은 지질학적 연구에서가 아니라 물리학적 연구에서 나왔다. 프랑스의 박물학자 뷔퐁(George Louis Leclerc Comte de Buffon, 1707-88)은 지구 냉각속도로부터 지구의 연령을 74832년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그의 결론을 성경과 맞추기 위해 그는 창세기 1장의 하루는 태양일 하루가 아니라 시대였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뷔퐁에 이어 지구의 나이에 관한 중요한 지질학적 연구는 스코틀랜드의 허튼(James Hutton, 1726-1797)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스테노와 같이 허튼도 지층이나 산맥의 형성을 설명하기 위해 오늘날 우리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침식, 퇴적 이외의 과정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특히 1차암석은 해양이 아닌 지하 지표면에서 용융된 암석의 냉각에 의해 만들어지며, 연한 지층이 단단한 2차암석으로 변화하는 데는 강한 압력과 더불어 높은 지열의 역할을 강조하여 베르너의 해성설에 대응하는 소위 '화성설'(Plutonism or Volcanism)을 제창하였다. 또한 허튼은 많은 지질연구를 통해 지층 연구로부터는 "시작의 흔적도, 종말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 (no vestige of a beginning, no prospect of an end)는 유명한 결론에 이르렀다.²⁸⁾

이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교회 내에서 심한 반발과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일부에서는 그를 무신론자라고까지 공격하였다. 특히 창 1:2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라는 구

28) A. G. Werner, *Short Classification and Description of the Various Rocks*(New York : Hafner, 1971).

29) James Hutton, *Theory of the Earth I*(Edinburgh: Creech, 1795), p. 200. 이 책은 1972년 Stechert-Hafner에 의해 다시 출판되었다.

절을 근거로 해성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격은 집요하였다. 베르너의 '대양'(universal ocean)을 '깊음'이라고 보았던 스위스의 칼빈주의자 뉘렉(Andre Deluc)은 일련의 편지를 통해 화성설을 공격했다.³⁰⁾

이런 갈등의 와중에서 이들을 절충시킨 이론이 제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지질학에서 보여 주는 오랜 연대를 성경의 기록과 조화시킬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성경에 대한 문자적 해석을 완화하는 것이었다. 프랑스 비교해부학자이면서 척추동물 고생물학자였던 퀴비에(Georges Cuvier, 1768-1832)는 창조주간의 옛새를 비유적 의미로 해석했다. 여러 해 동안 그의 동료 브롱기아르(Alexandre Brongniart, 1770-1847)와 파리 분지의 제3기 지층을 연구하면서 퀴비에의 영국의 스미스와 같이 한 지층은 독특한 동물군에 의해 다른 지층과 구별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단 한번의 대홍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음을 발견하고 그는 소위 다중격변설(Multiple Catastrophism)을 제안하면서 맨 마지막 격변이 바로 노아의 홍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퀴비에의 다중격변설은 점점 더 대담한 이론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그 중 한 이론은 젊은 스코틀랜드 교회의 목사였던 차머스(Thomas Chalmers, 1780-1847)에 의해 제시되었다. 흔히 재창조설(Restitution Theory), 파과 - 재건 이론(Ruin-reconstruction Theory), 간격이론(Gap Theory) 등으로 불리는 이 이론은 어거스틴이나 패트릭 등에서부터 유래한 것이지만 그들에 비해 차머스의 이론은 훨씬 더 정교하였다. 차머스는 창조주간의 하루하루는 태양일이며 하늘과 지구는 창조주간보다 오래 전에 창조되었다고 했다. 창 1:1-2은 창조주간 전의 불특정한 긴 시대 동안 지속된 상태를 말한다고 했다. 이렇게 함으로 오랜 지질시대는 창조주간 이전으로 포함시킬 수가 있으며 성경과 지질학은 충돌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차머스의 재창조설은 영국 목사이며 옥스포드대학 교수였던 버클랜드(William Buckland, 1784-1856)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버클랜드는 원래 퀴비에의 격변설을 약간 수정하여 받아들였다. 그리고 많은 지표면의 퇴적물들이 원래 있던 곳에서부터 먼 거리를 이동하여 다른 곳에 퇴적되어 있는 것이나, 동굴이나 지각균열, 다양한 포유동물들의 화석 등을 조사하여 노아홍수의 다양한 증거들을 찾았다. 그러나 한번의 대홍수만으로는 지질학적인 증거들을 다 설명

30) J. A. Deluc, *An Elementary Treatise on Geology*(London : no publisher, 1809).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버클랜드 역시 퀴비에와 같이 노아의 홍수 이전의 지구는 6천 년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으며 결국은 몇 년 전에 발표된 차머스의 재창조설을 받아들이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창조주간의 하루를 태양일로 받아들였던 차머스와는 달리 그는 창조주간의 하루를 시대로 보았다.

차머스, 버클랜드에 이어 재창조설을 다듬은 사람은 뛰어난 영국 성경학자 스미스와 도르팔대학의 교회사 교수였던 쿠르츠였다. 스미스(John Pye Smith, 1774-1851)는 창 1:2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the Earth became waste and void)에서 동사가 ‘became’이며 ‘was’가 아님을 강조하였다. 그는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서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창조주간 옛새동안 하나님께서 사역이라고 했다. 그리고 더욱 흥미 있는 것은 2절의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란 표현은 전지구적인 현상이 아니라 코카서스 산맥과 카스피해 지역으로부터 남쪽으로 페르시아만과 인도양까지의 제한된 지역에 서만의 현상이라고 했다. 물론 그후의 옛새 동안의 재창조도 이 지역에서만의 사역이었다고 했다.

쿠르츠(J. H. Kurtz, 1809-1890)는 1842년에 출판한 「성경과 천문학」(*The Bible and Astronomy*)에서 창조주간 이전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파괴한 모습이라는 재미있는 설명을 붙였다. 그리고 이 파괴는 타락한 천사들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 창조주간의 하루하루는 보통의 날이 아니라 ‘예언적인’(prophetic) 날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오랜 기간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흔히 첫번째 창조에 대한 심판 후 창조주간에 재창조했다는 쿠르츠의 이론을 재창조설의 원조로 본다. 쿠르츠의 이론은 미국 앰헬스트대학(Amherst College) 총장으로서 뛰어난 지질학자이면서 신학자였던 히치콕(E. Hitchcock, 1793-1864)에 의해 받아들여져 미국에 널리 소개되었다.

쿠르츠의 이론은 펨버(G. H. Pember)에 의해 더욱더 다듬어졌다. 펨버는 「최초의 지구」(*Earth's Earliest Ages*)에서 창조주간 이전의 원시적 혼돈상태는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 심판의 결과이며 이 심판으로 인해 지구에는 대격변이 있었다고 했다.³¹⁾ 그러므로 창조주간은 화석과 같은 지질학적 기록들과

31) G. H. Pember, *Earth's Earliest Ages*(Grand Rapids, MI: Kregel Publications, 1975), Chs. 1-4. 이 책의 Original edition은 1876년 Hodder and Stoughton 출판사에 의해 출판되었

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단지 사탄의 타락 때 일어난 대격변으로부터 지구를 회복하는 기간이었다고 했다. 그는 아담의 타락 이전까지의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으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아름다운 세계를 일부러 파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했다. 파괴는 심판의 모습이며 심판은 죄로 인해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창 1:2의 묘사를 심판의 결과로 해석한다면 불가불 심판의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타락한 천사일 수밖에 없었다. 펠버는 여섯째 날에 창조된 인간이 첫째 날 이전에 이미 한 번 만들어졌을 리가 없으며 게다가 성경에 것처럼 자주 등장하는 사탄의 정체와 기원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교묘하게 짚 맞추는 것이다.

당시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던 이러한 펠버의 주장은 「스코필드 관주성경」(Scofield Reference Bible)에 영향을 미쳐 최초로 재창조설이 성경의 관주에까지 삽입되었으며 이로 인해 재창조설은 많은 일반인들에게까지 퍼지게 되었다. 스코필드는 렘 4:23-26, 사 24:1, 45:18의 기록은 명백히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서 지구가 거대한 재앙을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그 때 지구는 곳곳에 재앙의 흔적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최초의 창조행위는 무한한 과거에 있어났음을 말해 주며 그 속에 모든 지질학적 시대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했다.³²⁾

그러나 이러한 재창조설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재창조설은 그 다음에 등장하는 균일설자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균일설자들은 재창조론자들이 모든 지질학적 증거들을 알 수 없는 과거에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돌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균일설’에서는 과거의 지구 역사는 초자연적인 존재의 간섭을 가정하지 않고 현재 지구에서 관찰되고 있는 과정만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과거 노아의 홍수와 같은 일회적 격변 따위는 가정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현재와 같은 과정이 오랜 시간 동안 일어나기만 하면 되었다.

스코틀랜드 생물학자이자 스코틀랜드 자유교회의 목사였던 플레밍(John. Fleming, 1785-1857)은 버클랜드의 홍수론은 비과학적일 뿐 아니라 비성경적이라고 공격했다. 그는 버클랜드가 노아의 홍수의 증거로 제시한 지질학적 증거들은 홍수와 같은 일회적 격변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자갈 퇴적

다.

32) C. I. Scofield, editor, *The Scofield Reference Bible*(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09), p. 3. 난하 각주를 보라.

물 등은 오랜 시간 동안 일어난 점진적인 퇴적에 의해서만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영국의 지질학자이며 국회의원이었던 스크로우프(George Poulett Scrope, 1797-1876)도 많은 야의 지질탐사를 통해 지질학적 현상은 격변보다는 오랜 기간 동안 현재의 과정이 지속되었다는 것으로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선구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균일설의 클라이막스를 장식한 것은 라이엘이었다.

버클랜드의 제자였던 라이엘(Charles. Lyell, 1797-1875)은 처음에는 버클랜드와 같이 6천 년 지구를 믿지는 않았지만 격변론자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후에 그는 불후의 저서 「지질학 원리」(*Principles of Geology*)를 통해 현재의 지질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전지구적 격변을 가정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여러 차례의 국부적 홍수만을 가정하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라이엘은 노아의 홍수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는 노아의 홍수는 전지구적이 아니라 중동지방에 일어난 국부적인 홍수였으며 전지구적으로 볼 때 그것의 효과는 미미하고 조용한 홍수였다고 했다. 라이엘의 균일설은 격변설에 비해 훨씬 더 긴 지구의 나이가 필요했다.

균일설은 현재의 지질학적 과정들을 과거로 외삽시킴으로 대부분의 지질학적 증거들을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균일설조차도 그 자체만으로는 성경과 지질학의 조화를 추구했던 사람들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그러므로 균일설과 성경을 조화시킬 수 있는 이론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날-시대 이론’(Day-Age Theory)이었다. 날-시대 이론에서는 창조주간의 하루하루를 태양 일 하루로 보지 않고 불특정한 긴 시대로 보았으며 이 긴 시대가 바로 지질학적 시대였다고 본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의 창조순서는 그때까지 알려진 대부분의 지질학적 증거들과 시간적인 순서가 일치하였다. 그러므로 이 이론은 기독교인이면서 지질학자인 사람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졌다.

날-시대 이론을 특히 복미주의 학자들 중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은 흥미 있는 일이다. 예일대학의 실리만(Benjamin Silliman, 1779-1864)과 다나(James Dwight Dana, 1813-1895), 프린스턴대학의 구이요트(Arnold Guyot, 1807-1884), 맥길대학의 도슨(J. William Dawson, 1820-1899) 등은 19세기의 가장 뛰어난 복미주 지질학자들이면서 날-시대 이론의 지지자들이었다. 그러나 날-시대 이론을 잘 다듬은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저널리스트이자 지질학자였던 밀러(Hugh Miller, 1802-1856)였다. 구이요트, 도슨과 더불어 쿠퍼의 영향을

받았던 밀러는 1857년, 「암석의 증언」(*The Testimony of Rocks*)이라는 저서를 통해 창세기 1장의 기록이 절대적인 물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지 관찰자에게 보인 외양을 기록한 것이라고 했다. 예를 들면 성경은 해와 달이 궁창(요즘의 대기권 공간)에 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대기권으로부터 훨씬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창조주간의 하루를 태양일 하루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차머스와 버클랜드의 재창조설에 부분적으로 동의했지만 지질학적 증거에서 격변의 흔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재창조설에 반대했다.

날-시대 이론은 창조주간의 하루를 불특정한 기간으로 보았던 성경해석에 의해 지지를 받았다. 창조주간의 ‘날’(음)을 불특정한 길이로 해석했던 대표적인 성경해석자들로서는 독일의 유명한 성경주석가 델리취(Franz Delitzsch, 1813-1890), 미국 개척교회의 루이스(Tayler Lewis, 1802-1877), 랑(John Peter Lange, 1802-1884), 스코틀랜드의 뛰어난 성경주석가 맥클라렌(Alexander Maclaren, 1826-1910) 등을 들 수 있다. 성경해석자들과 더불어 조직신학자들도 날-시대 이론의 다양한 변형들을 통해 이 대열에 참가하였다. 19세기 대표적인 미국 장로교 신학자 핫지(Charles Hodge, 1797-1878), 웨드(William G. T. Shedd, 1820-94), 스코틀랜드 자유교회 신학자 오르(James Orr, 1844-1913), 침례교 신학자 스트롱(A. H. Strong, 1836-1921), 감리교 신학자 밀리(John Miley, 1813-1895) 등은 날-시대 이론을 지지한 신학자들이었다. 균일설을 지지한 지질학자들과 창조주간의 하루를 불특정한 기간으로 보았던 성경해석자들, 다양한 날-시대 이론을 제안한 신학자들이 연대하여 날-시대 이론은 그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³³⁾

Ⅶ 새로운 분열

20세기에 들어와 ‘날-시대 이론’, ‘오래된 지구’의 개념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를 이용한 새로운 연대측정법의 발명으로 더욱 튼튼한 기초를 갖게 되었다. 1896년 프랑스 물리학자 베그렐(Henri Becquerel)에 의해 방사능이 발견된지 오래지 않아 사람들은 방사성 원소의 붕괴가 연대측정에 사용될 수 있음을 발

33) Young, *Christianity & the Age of the Earth*, pp. 57-59와 그 속에 포함된 관주들을 참고하라.

견하였다. 방사성 원소의 붕괴는 핵의 변환이므로 온도나 압력 등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붕괴속도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수많은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연대측정에 이용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믿을만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는 몇 가지로 압축되었다. 일반적으로 암석의 연대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반감기가 긴 우라늄-납, 토륨-납, 루비듐-스트론튬, 포타슘-아르곤 등의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는 매년 수천 건 이상의 암석과 광물질들에 대한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측정이 잘 정립된 표준 과정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오랜 연대를 보여 주고 있다.

오랜 암석연대와 더불어 오래지 않은 유기물들의 연대측정에는 주로 방사능 탄소(C-14)가 사용되고 있다. C-14연대측정은 1940년대 후반에 시카고대학 교수였던 리비(Willard Libby)에 의해 발명되었다. 여기서는 반감기가 5700년 정도의 C-14를 사용하므로 몇십 년으로부터 몇만 년에 이르는 유물들의 절대연대의 측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발명으로 인해 고고학, 고인류학, 고생물학, 지질학 등에서의 일대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초기의 여러 가지 미숙한 기술적 문제는 철저한 연구를 통해 대부분 제거되었으며 현재는 C-14 장치가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정도이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연대는 일반적으로 창세기의 창조주간의 하루를 태양일 하루로 해석하는 것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재창조설의 예측과도 맞지 않았기 때문에 날-시대 이론은 더욱더 많은 기독교학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특히 날-시대 이론은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정확무오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믿을 뿐 아니라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 없었던 - 특히 이 분야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는 - 복음주의 진영의 학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날-시대 이론은 교파를 초월하여 신학자들 중에 폭넓은 지지자들을 확보했다. 장로교인이면서 위튼대학의 3대 총장이었던 버스웰(J. Oliver Buswell, 1895-1977), 나사렛교단의 윌리(Orton Wiley), 성공회 홀(Francis Hall, 1857-1932), 루터교의 베텍스(Friedric Bettex, 1837-1915), 심지어 카톨릭의 포울(Joseph Pohle, 1852-1922) 등은 약간씩 모양은 달랐지만 전체적으로는 날-시대 이론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이론을 주장했다.³⁴⁾ 미국 복음주의 진영의 중

34) Young, *Christianity & the Age of the Earth*, p. 63과 Ch. 5의 미주 12-16을 보라.

요한 신학자 중의 한 사람인 램 역시 창조주간의 하루를 태양일 하루로 보지 않았다.³⁵⁾ 램 외에도 1941년에 창립된 이래 미국 복음주의 학자들의 대표적인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학자협회>(American Scientific Affiliation)에 속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런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³⁶⁾

23권에 이르는 주옥같은 저서들을 통해 복음주의 진영의 최고의 지도자이면서도 현금의 복음주의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아끼지 않았던 프란시스 쉐퍼(Francis A. Schaeffer, 1912-1984)도 창조의 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다.

창조의 날들에 있어서 날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창 5:2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고 했다. 아담과 하와가 동시에 창조된 것이 아님이 분명한 것과 같이 창 5:2에서의 날은 24시간의 기간이 아니다. 구약성경의 다른 여러 곳에서 히브리어 날은 때때로 영어에서와 같이 ‘시대’를 가리킨다. 그러한 용법의 예로서는 사 2:11-12, 17을 보라. (영어에서와 같이) 히브리어에서 날은 분명히 세 가지 독립된 의미로 사용된다: ① 24시간, ② 24시간 중 빛이 비치는 시간, ③ 불특정한 시간 간격.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의 날이 의미하는 정확한 시간의 길이를 개방된 상태로 두어야 한다.³⁷⁾

그러면 과학자들은 어떻게 주장하는가? 과학자들, 특히 연대 문제와 관련한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 중에는 이미 1950년대부터 창세기 1장의 욕을 태양일 하루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탄소-14 연대측정법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던 컬프(Lawrence Kulp)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탄소연대측정법의 세계적인 전문가로서 그는 1950년대 이후 미국 복음주의 학자들이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측정법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³⁸⁾

35) Ramm, *The Christian View of Science and Scripture* Chs. III, V, VI.

36) American Scientific Affiliation에 속한 학자들의 견해는 1년에 4차례 발간되는 *Journal of the American Scientific Affiliation*에 발표되는 논문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37) Francis A. Schaeffer, *Genesis in Space & Time*(Downers Grove, IL: IVP, 1972), p. 59. 한국어판: 권혁봉 역, 「창세기의 시공간성」(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4), 64-65면. 위 인용문은 원문에서 번역한 것이며 인용문 중 밑줄 친 부분은 원저자가 이탤릭체로 강조한 부분이다.

38) 컬프의 역할을 포함하여 20세기 미국 복음주의 학자들의 창조 연대에 관한 견해는 필자

지난 20여 년 동안 창조주간의 날을 태양일로 보지 않는 과학자들 일단은 개혁주의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과학자들이었다. 칼빈대학의 물리학 교수인 반틸(H. J. Van Till), 지질학 교수인 영(Davis A. Young),³⁹⁾ 메닝가(C. Menninga), 도르트대학의 화학 교수인 마트만(Russell Maatman)⁴⁰⁾ 등이 그 예이다. 이들 중 반틸은 우주의 연대에 대한 증거를 통해, 영과 메닝가는 지질학적 증거들을 통해 일만 년 이내의 짧은 지구와 우주는 불가함을 주장하였으며, 마트만은 성경적 입장에서 욥을 태양일 하루로만 해석하는 데 따르는 문제점들을 지적했다.⁴¹⁾

최근 복음주의자이면서 개혁주의 진영 바깥에서 오랜 지구와 우주 연대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로서는 캐나다 출신의 천문학자 휴 로스(Hugh Ross)를 들 수 있다. 토론토대학의 천문학 박사이자 칼텍(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포스트닥이었던 로스는 지금은 천문학을 떠나 <Reason to Believe>라는 단체를 만들어 성경의 과학적 변증, 특히 창조론에 대한 연구와 강연을 하고 있다. 그의 여러 저서들 중에서 특히 「창조와 시간」(*Creation and Time*)에서는 오랜 기간으로서의 창조일을 지지하는 역사적, 성경적, 과학적 논점들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 있다.⁴²⁾

이외에도 코넬대학에서 천체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페이스신학교에서 목회

의 글에서 자세히 논의하였다. Seung-Hun Yang, "Radiocarbon Dating and American Evangelicals", *Journal of American Scientific Affiliation* 45(4)(Dec. 1993).

39) 유명한 구약학자 Edward J. Young의 아들인 지질학자 Davis A. Young의 *Christianity & the Age of the Earth*는 욥을 시대로 해석하고 날-시대 이론을 주장한 최고의 수작으로 평가된다. D. A. Young, *Creation and the Flood*(Grand Rapids, MI: Baker, 1977) 역시 날-시대 이론에 대한 중요한 지질학적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40) Russell Maatman, *The Bible, Natural Science, and Evolution*(Grand Rapids: Reformed Fellowship, 1970).

41) Howard J. Van Till, *The Fourth Day*(Grand Rapids, MI: Eerdmans, 1986); H. J. Van Till, Davis A. Young, Clarence Menninga, *Science Held Hostage*(Downers Grove, IL: IVP, 1988), Part II.

42) Hugh Ross, *Creation and Time*(Colorado Springs, CO: Nav Press, 1994). 이 책 외에도 Ross는 기독교 신앙의 과학적 변증을 위해 몇 권의 책을 더 저술했으며 전체 저술들을 통해 일관되게 오랜 창조연대를 주장하고 있다. *The Fingerprint of God*(Orange, CA: Promise Publishing Co, 1989); *The Creator and the Cosmos*(Colorado Springs, CO: NavPress, 1993); *Genesis One: A Scientific Perspective*, Revised Edition(Sierra Madra, CA: Wisemen Productions, 1983).

학 석사를 받은 뉴만(R. C. Newman)과 코넬대학에서 천문학 연구를 했던 에켈만(H. J. Eckelmann, Jr.)도 창조주간의 하루를 태양일 하루로 볼 수 없는 자세한 과학적, 성경적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날·시대 이론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간의 하루를 태양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는 여타의 사람들과 동일하다.¹⁾

흥미 있는 현상은 몇몇 주요한 신학자들 중에는 특정한 이론을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창조주간의 하루가 태양일 하루가 아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바빙크(Herman Bavinck, 1854-1921), 영(Edward J. Young, 1907-1968), 키드너(Derek Kidner), 해리스(R. L. Harris)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창조주간 옛새 모두가 태양일이 아니거나, 혹은 태양을 포함한 일월성신이 넷째 날에 창조되었으므로 적어도 태양이 없었던 처음 사흘은 태양이 창조된 그 후 사흘과 같은 태양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²⁾ 또한 화란의 복음주의적 개혁신학자이며 자유대학을 창설한 카이퍼(Abraham Kuyper)는 창조주간의 하루를 태양일 하루로 보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이다. 카이퍼 외에도 구약학자 알더스(G. Ch. Aalders)는 오늘날의 시간의 기준이 되는 태양계가 넷째 날에 가서야 창조된 점을 들어 창조의 날은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날”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창조의 구체적인 시간을 계산하려고 하는 것은 항상 쓸데없는 노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³⁾

창조주간의 하루를 시대로 해석하려는 노력은 국내에서도 이따금씩 있어 왔다. 대표적인 예로는 건국대 주영훈 교수를 들 수 있다. 그는 현대의 지질연대를 그대로 받아들여 창조 첫째 날을 무생대와 시생대를 포함하는 선캄브리아기로, 둘째 날을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사일루리아기를 포함하는 고생대 전기로, 셋째 날을 데본기, 석탄기, 이첩기를 포함하는 고생대 후기로, 넷째 날을 삼첩기를 포함하는 중생대 전기로, 다섯째 날을 쥐라기, 백악기를 포함하는 중생대 후기, 여섯째 날을 제3기 전체와 제4기 홍적세를 포함하는 신생대 전기로, 일곱째 날을 충적세, 현세를 포함하는 신생대 제4기 후기로 보았다.⁴⁾

1) Robert C. Newman and Herman J. Eckelmann, Jr., *Genesis One and the Origin of the Earth*(Downers Grove, IL: IVP, 1977), Chs. 1, 4-6.

2) Young, *Christianity & the Age of the Earth*, p. 63.과 Ch. 5의 미주 21-24를 보라.

3) G. Ch. Aalders, *Genesis I*(Grand Rapids, MI: Zondervan), Bible Student's Commentary 시리즈 - 「창세기 I」(서울: 기독교지혜사, 1986), 70-71면.

4) 주영훈, 「창세기의 천지창조 上 - 성경과 자연과학」(서울: 성경읽기사, 1991).

날-시대 이론과는 꼭 같다고는 할 수 없으나 비슷한 방향에 있는 이론으로서 일부 주요한 신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이론으로는 창세기 1장의 ‘골격가설’(Framework Hypothesis)이 있다. 놀트찌히(A. Noordtzi), 리더보스(Nicholas Ridderbos), 클라인(Meredith Kline) 등이 지지하는 이 이론에 의하면 창세기 1장의 논의에서 시간 문제는 문제를 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⁵⁾ 창조주간의 날이란 시간의 순서나 길이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되며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처음 사흘 동안 창조된 것들은 나중 사흘 동안 창조된 것들과 병렬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창조의 관심은 날의 ‘길이’가 아니라 각 날들 간의 ‘관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지질학적 증거들과 아무런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오랜 연대와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복음주의 학자들 중에 이 이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⁶⁾

날-시대 이론 전에 등장하여 상당 기간 동안 인기를 누렸던 ‘재창조설’은 많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일부 지지자들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코필드 관주성경」에서 이 입장을 지지하였으며,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들 중에 중국의 전도자 워치만 니(Watchman Nee)가 이 입장을 지지했다. 그는 창 1:1이 단순한 선언만 있을 뿐 자세한 창조과정에 대한 묘사가 없는 점에 착안하여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긴 세월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워치만 니는 학자는 아니지만 한국 교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또한 재창조설 주장자들의 전형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창세기 1장의 첫째 절의 시간과 둘째 절의 시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연한이 흘러갔는지도 알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언제 창조하셨는지를 모르며, 원래의 창조 후에 2절에 묘사된 황폐화가 일어났던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로는 원래의 완전한 창조세계가 그것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기 전에 많고 많은 시간 동안 지속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긴 기간은 소위 선사시대(先史時代)를 덮기에는 충분했을 것이다. 지질학이 요구하는 모든 연대와 그 연대 사이에 분류되는 모든 이른 바 지질 시대들은 이 시간구조 속에 짜여질 수 있다. ... 우리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지구 **의 나이가** 단지 6천 년에 불과하다고 언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성경은 다

5) M. G. Kline, "Because It Had Not Rained," in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20(1958), pp. 146-157.

6) Young, *Christianity & the Age of the Earth*, p. 64.

만 인류의 역사가 대략 6천 년임을 밝히고 있다. 성경의 첫 두 절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성경과 지질학 사이에 아무런 충돌이 없음을 알게 된다. 성경에 대한 지질학자들의 공격은 허공만을 치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가.⁴⁹⁾

그러나 워치만 니는 간격이론이 지질학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간격이론은 전체적인 지질시대의 길이를 제공할 뿐, 구체적으로 지층 속에 포함되어 있는 화석적 증거나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측정 결과들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과학자들, 특히 모든 지질학자들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근래에 과학자로서 이 이론을 주장했던 사람은 캐나다의 인류학자이면서 생리학자였던 쿠스탄스(Arthur C. Custance)가 있다. 그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연결하는 히브리어 접속사 WAW가 '그리고'(and) 보다는 '그러나'(but)로 연결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주장과 더불어 재창조설을 주장하였으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러한 해석에 찬성하지 않는다.⁵⁰⁾

그러면 창조주간의 길이를 태양일 하루로 해석하고 지구가 최근에 창조되었다고 견해는 어떤가? 근래에 들어와서도 여러 복음주의 신학자들 중에는 여전히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예를 들면 루터교 학자들로서 피퍼(Frances Pieper, 1852-1931), 뮐러(John T. Mueller), 류폴드(H. C. Leupold) 등이 있고 화란 칼빈주의자들로서는 헤세마(Herman Hoeksema, 1886-1965), 벌코프(Louis Berkhof, 1879-1950) 등이 있다. 헵(Valentine Hepp, 1879-1950) 역시 지구가 오래되었다는 주장은 진화론적 편견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젊은 지구와 전지구적 홍수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20세기에 시작될 창조과학 운동의 전초에 불과했다.⁵¹⁾

20세기 복음주의 진영, 엄격하게 말하면 근본주의 진영의 가장 중요한 운동 중의 하나는 바로 창조과학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6천 년 지구역사와 홍수지

49) Watchman Nee, 「창조의 신비」(*The Mystery of Creation*), 윤무길 역(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16-17면. 인용문에서 고딕체 강조는 번역본에 있는 그대로이다.

50) Arthur C. Custance, *Without Form and Void*(Brockville, Canada: Custance, 1970); *Time and Eternity*(Grand Rapids, MI: Zondervan, 1967), Part III.

51) Young, *Christianity & the Age of the Earth*, p. 64와 Ch.5의 미주 28-33을 보라.

질학으로 특징 지워지는 창조과학 운동은 원래 안식교에서 태동되었다. 안식교의 교주랄 수 있는 화이트(Ellen G. White) 여사의 '천국여행' 환상을 기록한 책에서 영감을 얻은 지질학 교사 프라이스(George McCready Price)는 - 후에 안식교 계통의 대학에서 교수가 되었다 - 모든 지층과 화석은 노아의 홍수 때 한꺼번에 만들어졌으며 따라서 모든 지질학적 증거는 홍수이론 위에서 다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라이스는 「상식 지질학」(*Common Sense Geology*), 「신지질학」(*The New Geology*)을 비롯한 수십 권의 저서들을 통해 안식교 내에서 거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었다. 그의 안식교인 제자들 중에는 클라크(Harold Clark), 버어딕(Clifford Burdick) 등의 전문적인 지질학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프라이스의 '홍수지질학' 이론은 실제적인 여러 가지 증거들로 보강되게 되었다.

프라이스의 홍수지질학은 일부 복음주의 학자들 중에서도 루터교 학자인 넬슨(Byron Nelson), 남침례교 출신의 토목공학자 모리스(Henry Madison Morris)와 같은 중요한 몇몇 지지자들을 발견했다. 특히 수십 권의 저서와 정열적인 강연, 방송 등을 통해 모리스는 20세기 창조과학 부흥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의 영향으로 생겨난 주요 단체만도 <창조연구협회>(Creation Research Society), <창조과학연구센터>(Creation Science Research Center), <창조과학연구소>(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 등이 있으며 특히 ICR은 지금까지도 창조과학운동의 국제적 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⁵²⁾

연대에 관한 개인의 견해가 반드시 교단의 견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창조주간의 하루를 태양일 하루로 본 창조과학자들은 주로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교파에 속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미국의 경우 정통교파에 속해 있는 교단들 중에서 창조주간의 하루를 24시간이라고 보는 교파는 주로 근본주의적이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받아들이는 교파가 많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⁵³⁾ 일반적으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자들은 성경에 나타난 예언들이 성취

52) 미국에서의 창조과학운동의 전개에 대해서는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과학사학과 교수이며 필자의 지도교수였던 Numbers교수가 최근에 쓴 책을 보라: Ronald L. Numbers, *The Creationists - The Evolution of Scientific Creationism*(New York: Alfred A. Knopf, 1992).

53) George M. Marsden, *Understanding Fundamentalism and Evangelicalism*(Grand Rapids, MI: Eerdmans, 1991), pp. 158-165; 한국어판 - 홍치모 역, 「미국의 근본주의와 복음주의 이해」(서울: 성광문화사, 1992), 186-192면.

되는 시기를 정확한 수치로 계산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계산들을 지지하는 듯이 보이는 과학적 증거들을 선별적으로 신뢰하려는 경향이 있다.⁵⁴⁾

우선 정통 교단으로서 젊은 창조연대를 받아들이는 교단을 살펴보면 ICR의 영향을 받고 있는 미국의 남침례교회, 루터 교단 중 미주리 노회(Missouri Synod) 등을 들 수 있다.⁵⁵⁾ 한국에서는 1981년 ICR의 후원으로 시작된 <한국 창조과학회>의 영향으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단들도 대부분 젊은 창조연대를 받아들이고 있다. 창조과학자들은 공식적으로는 “창조론에서는 지구의 연대가 젊거나 오래되거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오랜 연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쉽게 진화론자로 오해를 받는다. 한국창조과학회가 미국 창조과학운동의 정서를 별 비판없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체적으로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과 한국 국민의 흑백논리적이고 근본주의적인 특성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창조주간의 하루를 태양일 하루로 보는 사람들 중에는 정통 교회로부터 이단시되는 교파들도 있다. 이단시되는 교파들 중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안식교와 더불어 몰몬교 등이 젊은 지구와 우주 연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 중 안식교는 창조주간의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것을 교단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발표한 바가 있으나,⁵⁶⁾ 몰몬교의 경우에는 일부 몰몬 학자들에 의해 개인적인 의견들이 제시된 적이 있다.⁵⁷⁾

54)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근거한 대표적인 종말 소설로는 70년대 미국의 수퍼 베스트셀러 Hal Lindsey, *The Late Great Planet Earth*(대유성 지구의 종말) 등을 들 수 있다.

55) 미국 남침례교단의 배경을 가진 대표적인 학자로는 H. M. Morris를, 루터교 배경을 가진 사람으로는 Byron C. Nelson(*After Its Kind, The Deluge Story in Stone*의 저자)을 들 수 있다. Missouri Synod Lutheran의 입장에 관해서 자세하기 알기 위해서는 John Mueller, “based on lectures of Francis Pieper”, *Christian Dogmatics*(St. Louis: Concordia, 1934), pp. 104-120을 참조하라.

56) *Seventh-day Adventists Believe...*(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ociation, 1988), p. 71.

57) 예를 들면 Melvin Alonzo Cook and Melvin Garfield Cook, *Science and Mormonism*(Desert News Press, 1967), Chs. V-IX; M. A. Cook, *Prehistory and Earth Models*(London: Max Parrish, 1966), Chs. I-VI.

Ⅸ. 그러므로 역사는 ...

지금까지 우리들은 역사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창조연대에 관하여 어떤 견해를 견지하고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비록 초대 교회 지도자들의 기록들이 많이 분실되었고 근대에 들어와서는 학문의 분야가 세분되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분야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견해가 교회를 대표하는 의견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창조연대에 관한 역사적인 고찰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근대에 이르기까지 부분적으로나마 창조 시간의 길이에 관한 주제를 다루었던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은 창조의 날이 여섯 번의 연속적인 24시간이었다는 주장을 거부하고 있다. 기독교 역사에서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했으나 일반적으로 창조주간의 하루를 오늘날과 같은 태양일 하루로 본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이들은 과학적인 편견, 즉 우주나 지구, 생물들의 연대가 오래되었다는 현대의 천문학적, 지질학적, 고생물학적 증거들이 제시되기 오래 전에 그러한 결론에 이르렀다.

둘째, 초대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창조 날의 길이를 포함한 창조주간의 전체적 시간이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특성,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의 의미, 방법, 대상 등에 비해 창조의 연대나 창조주간의 길이는 별로 주목을 받지 않았다. 성경에 나타난 세 번의 창조기록(창 1-2, 시 104)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바는 ‘누가’ 창조했느냐 였다.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도 상당히 강조되었다. 그러나 ‘언제’ 창조되었는지는 별로 중요하게 강조되지 않았다. 2000여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창조연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게 된 것은 18세기 현대 지질학과 19세기 생물 진화론의 등장 이후이며, 특히 교회 내에서 연대 문제로 인한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은 20세기 미국에서 창조과학운동의 대두와 더불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오랜 지구의 연대는 진화론과 무관하게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18세기 현대 지질학의 출현이나 19세기 생물 진화론의 출현과 무관하게, 이미 초대 교회 시대부터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은 창조주간의 하루를 태양일 하루로 보지 않았다. 19세기 중반,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판된 이후부터 본격화된

창조와 진화의 논쟁과 창조연대에 관한 논쟁은 별개의 것이었다. 교회 내에서 연대 논쟁을 창조와 진화의 논쟁으로 비화시켜 상처와 분열을 일으킨 것은 20세기 전반 미국 남부를 중심으로 한 근본주의 운동의 부흥과 이의 부산물의 하나인 창조과학의 등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근대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창조연대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을 수용했다. 초대 교회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했고 창조연대에 대한 의견의 차이로 인해 내분이 있었다는 어떤 기록도 없다. 초대 교회 지도자들은 창조연대에 관한 한 그들의 견해를 잠정적으로 제시했다. 물론 종교개혁기로부터 18세기초까지는 창세기 1장의 날을 태양일로 보고 성경에 나타난 계보와 연대기들이 정확하다는 가정하에 지구의 역사를 6천 년 내외라고 해석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초대 교회로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해석자들이 창세기 1장의 날을 ‘시대’라고 해석한 사람들과 큰 충돌을 빚었다는 증거가 별로 없다. 루터와 칼빈의 견해가 달랐지만 이들이 연대 문제로 충돌했다는 기록은 없다. 오늘날 우리들도 선배들의 관용과 이해심을 본받아야 할 것이며 성경이 정말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성서를 해석하는 사람은 의견의 차이가 있더라도 사랑과 진리에의 열의에 있어서 일치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을 기억해야 한다.⁵⁸⁾



■ 양승훈 ■

1955년 경북 점촌에서 태어나 경북대 물리교육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반도체 물리학 박사학위 취득, 현 경북대 물리교육과 교수,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실행위원, 기독교교육연구소 소장으로 활동. 저서로 「기독교세계관의 이해와 적용」, 「낮은자의 평강」, 「환경문제」, 「나그네는 집이 가법습니다」 외 다수

58) St. Augustine, 「고백」(종로서적, 1989), 353면.